

화재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취재 : 최 태 원 <홍보부대리>

...우리 나라가 개화기를 맞고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상공업의 要衝으로서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서해안의 항구도시 인천. 이곳 인천의 서쪽 맨끝 月尾島의 북쪽 상단에는 올해로 창업 51주년을 맞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목재업계의 선봉장이라 할 수 있는 大成木材工業(株)의 월미공장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경기의 호전으로 그간 이 업계가 겪어 왔던 오랜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 현장은 활기에 차 있고 그들의 일손이 바빠 움직이고 있는 것에서 이 공장의 밝은 앞날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 공장개요

인천직할시의 서쪽에 위치한 월미도의 주위 일대에는 해안을 따라 유수한 목재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이들 중 대성목재공업(주)는 1936년에 설립된 합판 및 particle board 생산업체로서 이 회사는 인천지역에 3개의 생산공장을 갖고 있으며 이번에 불의의 화재사고를 당한 공장은 중구 북성동 1가 6-85에 소재한 월미공장이다.

이 월미공장은 1971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1980년에 particle board 제 2공장을 증설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약 5만6천여평의 대지위에 연면적 약 1만7천여평에 달하는 크고 작은 건물 30개 동이 들어서 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 및 연간 생산능력은 합판 1천1백9십만매, particle board 3백6십5만매, 가공합판 2십7만2천매와 그밖에 합판 접착제로서 자체 생산품 가공에 사용하기 위한 수지, 포르말린 등이며, 공장은 1천1백여명의 종업원들에 의하여 24 시

간 풀가동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생산품은 약 90%가 국내 시판되고 나머지가 수출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약 5백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 화재발생 및 조치상황

화재는 '86년 6월 20일 오후 4시 30분경 particle board공장의 wide belt sander기에서 제품의 표면 연마작업 중 particle board의 표면에 붙어 있는 금속 이물질과 sand paper가 마찰되면서 발생한 불꽃이 集塵機로 연결되어 있는 duct내의 木粉에 인화되어 일어났다.

당시 wide belt sander기에서는 2명의 종업원이 작업중이었는데 이들은 집진기와 연결되어 있는 duct에서 갑자기 불길기 튀어나오자 본능적으로 피하면서 “불이야”하고 소리를 질러 화재가 난 것을 주위에 알렸다. 그리고 즉시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소화기 및 소화전 등을 이용, 소화작업을 폈으나 그 주위에는 워낙 타기 쉬운 미세한 나무 가루가 쌓여 있던 터라 불길은 duct를 통하여 순간적으로 집진기의 내부에 있는 목분을 타고 번졌으며 좀처럼 잡히려 들지 않았다. 그러던 중 자체에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와 인근 호남정유의 소방차가 출동하여 합동으로 소화작업을 펴므로써 발화한지 약 2시간만인 오후 6시 40분경 완전히 진화되었다.

● 방화관리현황

이 공장의 방화관리는 총무부의 비상계획과의 인원 5명이 담당하고 있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공장내의 전 종업원들로 별도의 기동타격대를 편성, 요소요소마다 담당구역을 할당해 놓고 있으며 방화관리 자로는 총무부장 金 周培씨가 맡고 있다. 그래서인



● 피해 및 복구상황

이번 불로 wide belt sander기 1대의 일부가 화열 및 소화수에 오손되었고 집진기 1대는 전소되었으며, 집진기 내부가 화열로 팽창되는 바람에 hopper 부분이 파열, 그 충격으로 주위의 부대설비 및 신물의 지붕 일부가 파손되었다. 다행히도 건물의 규모나 火災荷重에 비하여 그리 큰 손해는 입지 않았지만 생산 중단에 따른 간접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우선 복구작업을 서둘러 마쳤다.

이 공장은 한국화재보험협회에 '84년 4월 1일부터 '87년 4월 1일까지 총 150여억원의 보험금액으로 3년만기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장기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는 이번 화재 손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손해사정을 거쳐 3천7백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이 공장의 총무부에서 보험 관련업무를 7년 이상 줄곧 맡아오고 있는 洪 炳杓씨는 기계시설의 보험가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 『저희 공장은 기계 가액을 定率法에 의한 감정원 감정가로 부보했는데 화보험회에서는 요번 손해사정에서 定額法에 따른 보험가액을 산출했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실제 손해액 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보상을 받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 결국 저희가 가입한 보험은 일부보험이 되어 버린 꼴인데, 이러한 문제라면 조금이라도 피보험자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라면서 재산가치 평가방법을 피보험자측 요구대로 해주든지 혹은 평가 기준을 정률법이든 정액법이든 어느 한 가지로 통일하여 이와 같은 서로의 불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을 누차 강조했다.

현대의 기업 경영방침이 어디까지나 서비스 제일주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비록 이러한 주장이 우리의 업무방침을 사선에 알지 못했던 데서 비롯된 어느 일방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먼저 고색에 대한 우리의 봉사적 자세부터 재검토해 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30%의 好機를 맞아 그간의 불황을 씻고 작년보다 흑자경영으로 돌아선 이 大成木材 月尾工場은 이제 매출액 1천억원의 목표를 향해 오늘도 힘차게 움직이고 있다. 바로 이들의 모습에서 삶의 의미를 역력히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지 하위직급의 직원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고 있는 많은 업소에서와는 달리 그 조직체계가 빈틈없이 짜여져 있고 그 수행능력 또한 탁월하다. 이러한 공로로 지난 '86년 11월 1일에는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86년도 특수직장 자위소방능력 평가 결과에 대한 자위소방 우수직장으로서 최우수상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부장은 『방화관리 모범업체로서 표창을 받은 것은 노력의 댓가라고는 할 수 있지만 목재가공업과 같이 화재위험도가 높은 특수성을 감안할 때 평소 그 정도의 조직적 관리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장에서는 전 종업원들에게 방화 안전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독려와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라며 그 공과를 모두 부하직원에게 돌렸다.

계속해서 김부장은 『금년들어 소화기 등 각종 방화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었던 것은 유원건설이 금년 1월부터 이 공장을 인수하고부터입니다.

사장님이하 전 경영진 모두가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지요』라며 자신에 찬 모습으로 강조했다.

또 한가지 이 공장의 방화관리면에서의 철저한 대책을 든다면 주위의 인접한 호남정유 등 6개 업체와 비상시 상호 출동지원 체인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공장의 소방차 2대를 비롯 대부분 소방차를 보유하고 있는 이 체인은 유선으로 상호 연락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을 갖추고 이들 6개 업체 중 어느 한 곳이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지원 가능한 소방장비를 탑재한 소방차 등이 출동, 합동으로 화재를 진압토록 되어 있는 연계조직이며 이번 화재사고에서도 피해를 줄이는데 이 조직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